

“부끄러움, 같이 공유하고 느끼길”

‘한국 발레계 신사’ 김용걸 교수, 후배 양성하며 정의로운 춤 강조



발레리노 김용걸 교수

“안무가는 숙된 말로 잔머리 쓰는 것을 싫어해요. 1차원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죠.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한 불편함이 저를 그대로 짊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대로 토해지더라고요.”

‘한국 발레계의 신사’로 통하는 안무가 김용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가 신작 ‘수치심에 대한 기억들’로 점잖지만 따끔한 안무를 선보인다. 2016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를 통해 발표하는 작품으로 14, 15일 대하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왕따, 성직자 비리, 성매매, 동물 학대 등 우리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날 것으로 그린다. 실제 사건 관련 영상 등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도 도입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만든 ‘빛 침묵 그리고...’의 연장선상이다.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김 교수는 “자연스럽게 이번 주제를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간 귀찮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모른 척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 마음을 함께 느꼈으면 해요.”

그걸 잘 안 느끼려고 하잖아요. 방관 때문에 아무런 수치심을 안 느끼는 건데 이번에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같이 나눠 보자는 거죠.”

몸의 언어가 한계가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메시지를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뉴스 보도 등의 영상을 활용하는 이유다. 뉴스 클립의 앵커 멘트가 그대로 삽입된다.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끔찍한 사건과 관련해 한 마디 들었을 때 느낌을 우리 일처럼 느끼길 바랐죠. 그런 공감은 회의실 등 일상에서는 힘들잖아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바로 우리 이야기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건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다. “무용은 기본이예요. 그와 함께 옳은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해야죠. 그런 것이 없으면 춤을 췄을 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네가 실패하고 잘난 걸 뽐내기 위한 춤이라면 그만두라”고 하죠.

예술가는 시대를 표현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시대가 아름답다면 아름답게 공유하고, 반대로

그 시대가 어둡다면 어둡게 표현할 수 있어야죠.”

김용걸은 한국 발레리노의 역사로 통한다. 국립발레단을 거쳐 2000년대 아시아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발레단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최근 그의 뒤를 이어 젊은 무용수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졌다. “젊은 시기에 도전하려고 전해주고 싶어요. 성공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죠. 도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겁먹고 한국에 있으면 더 다양한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2009년 귀국 후 한예종에서 후배를 양성하며 ‘김용걸 댄스 씨어터’를 만들고 안무가로도 활약 중이다. 국립발레단의 리로 만든 ‘여행자들’을 최근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하우스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바쁜 스케줄로 예정보다 활동이 뜸해졌지만 현역 무대 역시 떠난 건 아니다.

“다 함께 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무대 위 생활도 좋으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아프다고 해도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한 다양하게 제 테포를 유지하고 싶어요.” /뉴스

‘브로드웨이 42번가’ 군산예술의전당 무대에

SHOW 뮤지컬의 정수라 불리는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3회에 걸쳐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국내 초연 20주년을 기념해 역대급 골드 클래스 캐스팅(송일국, 이종혁, 김선경, 임혜영, 예녹)으로 오리지널 퀄리티를 뛰어넘는 감동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뮤지컬 팬들의 기대를 반영하듯 현재 98%이상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3회 연속 매진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품이 있는 코러스걸 페기소 여가 브로드웨이로 건너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뮤지컬 스타가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300여명의 눈부신 무대예술을 입은 30여명의 코러스가 선보이는 화려한 탭댄스와 코인댄스는 14개의 대형 무대장치 위에서 30회가 넘는 습 가쁜 무대전환을 선보인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올해 기업체와 공동으로 기획한 3번째 작품이다”며 “1996년 한국 초연 이래 역대 최고의 화제와 흥행성과를 이루어낸 이번 2016 라이선스 공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1980년 초연 당시 토니상 8개 부문 노미네이트, 최우수작품상과 안무상을 거머쥐었고, 2001년 리바이벌 무대 역시 8개 부문 후보작으로 선정돼 최우수 리바이벌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미국 브로드웨이산 뮤지컬의 대표적 스테디셀러 작품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 공간 재창조 사업 ‘꿈에 본 내 고향’ 공모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도내 문화와 자연경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볼거리 및 예술성이 가미된 고품격 관광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 문화예술인 대상 관광 내 벽화 또는 트리아트 등의 예술작품을 제작 및 설치하는 <문화관광 공간재창조 사업-꿈에 본 내 고향>을 펼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전라북도도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 또는 재창조하기 위하여 도내 지자체 대상 사업 대상지 및 콘텐츠를 추천받아 공정한 외부 심사를 통해 입실 성가리 일대(입실 운수팔경) 및 변산 격포항(변산팔경)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재단은 선정된 대상지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 할 문화예술인 혹은 단체를 공모 중에 있으며, 지원 자격은 도내 거주중인 문화예술인으로서 벽화 및 트리아트 등 관련 사업을 1회 이상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업설명회는 오는 14일 전북도문화관광재단(전북예술회관에서 실시 될 예정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17~21일 이다. 재단은 철저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두 개 단체(개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개인)는 오는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는 “이번사업은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라북도’라는 재단의 비전을 잘 보여주는 사업으로 지역이 가진 콘텐츠와 출향예술인을 연계한 유무형 문화관광콘텐츠 활용의 좋은 예”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사진촬영명사로 활용되어 관광객의 SNS 활동 등을 통한 자발적인 온라인 홍보마케팅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www.jbc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문화관광팀 230-7452. /정해은 기자

부패한 권력 향해 활시위 당긴 이성계 이야기, 창극으로 탄생

전북도립극원 개원 30주년 기념 창작창극 ‘이성계, 해를 쏘다’ 공연



‘시골무사가 해를 쏜다. 온 세상이 칭송하라. 새 나라를 세웠다. 아침 해가 떠오른다.’

부패한 권력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던 이성계의 변혁이야기가 창작창극으로 부활한다. 전북도립극원은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창극단 대표공연으로 ‘이성계, 해를 쏘다’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의 주제를 이성계로 택한 배경에는 그의 일대기 및 역사적 소재가 도내 지역(전주 경기전·오목대, 남원)에 상존하고 있어 전북의 정서와 특징을 담아낼 수 있음은 물론 조선시대의 역사성을 그려낼 수 있어 작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도립극원 측의 설명이다.

작품은 고려 말 혼돈기에 권신척족들의 횡포, 무능한 왕의 실정과 외척의 침입으로 신음하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역성혁명으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이성계의 영웅적 생애와 혁명의 긴 과정을 거치면서 이성계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 고뇌와 회한에 초점을 둔 창작창극으로 전3막 12장으로 구성됐다.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기존의 작품들이 통상적으로 이성계의 영웅적인 면

피해 갈 수 없었다. 작품은 인간이 아무리 높은 지리에 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존재인 인간의 울타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성계의 인간적인 면모를 표현해 낸다.

창극의 대본·각색은 광병창 우석대 교수가, 각색·연출은 김홍승 국립극장 전문위원이, 작창은 조봉달 창극단장이, 작곡·편곡 및 지휘는 이용탁 국립극관악단 부지휘자가, 안무는 김수현 무용단장이 맡았다. 무대에는 전북도립극원 창극단·관현악단·무용단, 객원 등 총 140여 명이 출연해 장대한 극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광병창 작가는 “끔찍한 말년을 통해 상투적 찬사보다 인간적 측면의 이성계를 볼 수 있다.”며 “인간의 나약함과 존재 자체의 쓰라림을 눈여겨볼 수 있으며 애잔하고 씩씩한 면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홍승 연출가는 “이번 작품은 전북도민들의 정서에 다가갈 요량이다. 작품에 사상이나 의미가 부여될수록 재미는 반감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물의 이름을 내건 작품일수록 그러하여극 제목에 해를 쏘다를 삽입했다”고 말했다. 작품은 15일 오후 7시와 16일 오후 3시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만날 수 있으며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무료로 공연된다. 문의 290-5531. /정해은 기자

“차은택 펀드 특혜,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둘러싼 펀드 증액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문체부가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추천 콘텐츠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해 차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기사에서 지적한 ‘융합콘텐츠 펀드’는 융합콘텐츠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며 “문화창조융합센터 추천 콘텐츠를 이 펀드에서 따로 예시한 것은 문체부 내 타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도 이러한 정책 간 연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펀드들이 다수 조성된 바 있어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가치 평가연계펀드,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펀드’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율러 “모태펀드 투자의 주요 목적은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수익률 저하는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개선될 부분이다.

실제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수익률이 낮았던 시절부터 꾸준히 영화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영화 시장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 <2016년 10월 12일>

<p>▷쥐띠 48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계약시 좋은 운. 60년생: 일적으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좋은 운.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운. 84년생: 자신의 일에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p>	<p>▷소띠 49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말라. 61년생: 가장 어리석은 것은 건강에 대해 자만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73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진다. 85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나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나타 이성이다. 62년생: 판단오류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이다.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수가 발생한다. 86년생: 금전운이 안 좋으니 투자나 투기는 금물이다.</p>	<p>▷토끼띠 51년생: 작은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 63년생: 놀랄 일이 발생하니 원형은 삼가라. 75년생: 감기와 같은 기관지 계통의 질병에 주의할 운. 87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p>
<p>▷용띠 5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힘든 일도 잘 풀릴 것이다. 64년생: 아직은 불리하니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76년생: 외부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88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실패자에게 도움을 구하라.</p>	<p>▷뱀띠 53년생: 지금은 상황이 불리한 것 같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라. 65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77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는 운이다. 89년생: 듣기에는 쓴 소리이지만 귀를 기울여라.</p>	<p>▷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없으니 때를 기다려라. 66년생: 다른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니 사람을 골라 상대하라. 90년생: 욕심은 화를 부르니 마음을 비우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p>	<p>▷양띠 55년생: 기존의 것에 기대해봤자 결실을 맺지 못한다. 67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신중하라. 79년생: 외부로 확장해보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p>
<p>▷원숭이띠 56년생: 뜻밖의 귀운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는다. 6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운을 만날 수 있는 운.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운.</p>	<p>▷닭띠 57년생: 금전거래는 삼가라. 상대가 나중의 행동이 다를 것이다.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93년생: 원형을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틀이 없었다.</p>	<p>▷개띠 46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으며 기본 일이 생긴다. 58년생: 사람들의 모임도 길하고 금전운도 좋은 운. 70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82년생: 처음에 손해를 보던 후에 얻게 된다.</p>	<p>▷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 59년생: 과음, 과식은 삼가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71년생: 가벼운 신책이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볼 것. 83년생: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불리하니 차분하게 생각하라.</p>